

가상화폐 광풍에 속출하는 부작용

최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이 관심을 키우면서 관련 사건도 빈번해지고 있다.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에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로 흘러들어오면서 거래가격도 치솟자 투자자가 급증하는가 하면, '가상화폐 채굴'에도 뛰어드는 등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코인 대박'...투자자 급증=6일 국민의 힘 강민국(경남 진주시) 의원이 빙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는 246만명을 넘어섰다.

비트코인 광풍이 불던 지난 2017년 204만명을 뛰어넘은 것으로, 거래금액도 지난 2월 25일까지 445조원에 이르렀다. 하루 평균 거래액도 최고액인 7조9460억원에 달했다.

4년 전과 비슷한 가상화폐 광풍이 몰아치면서 광주·전남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투자가 발생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B(57)·C(56)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8개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 광주시 서구에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차리고 '에어비트'라는 슈퍼컴퓨터로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꾀어 수십여명의 피해자들에게 5억 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투자하면 4억원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속이는 등 실제가 불분명한 투자 상품을 매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였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광산경찰청도 지난해 1월 가상화폐(비트코인)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수익원을 가로챘다는 사



"1억 투자하면 4억 받는다"
"비트코인 저렴하게 판다"
투자 사기 등 범죄 잇따라

채굴 그래픽카드 가격 뛰자
모텔 돌며 그래픽카드 절도
손님 감소 PC방 채굴 가세도
투자 아닌 중독 개념 변질 우려

건을 접수받고 수사중이다.

◇가격 급등에 채굴 열풍=가상화폐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PC방 업자들은 '채굴'에 뛰어들었고 채굴 열풍에 컴퓨터용 그래픽카드 품귀 열풍도 빚어지고 있다. 급기야 품귀 현상에 모텔 객실에 비치된 PC에서 그래픽 카드만 훔쳐 달아나는 '틈새'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청도 광주시 북구 신안동 모텔 등을 돌며 4차례에 걸쳐 객실 PC에 설치된 600만원 상당의 그래픽카드를 훔친 혐의(절도)로 D(23)씨를 불잡아 조사중이다. D씨는 가상화폐 가격 상승으로 덩달아 치솟고 있는 컴퓨터용 그래픽 카드를

훔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는 네트워크상의 전자 장부인 블록체인을 유지·확장하기 위해 복잡한 계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때 그래픽카드의 GPU(그래픽처리장치)가 컴퓨터 CPU(중앙처리장치)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그래픽 카드 수요가 크게 늘었다. 고성능 카드일수록 채굴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지다보니 고급형 카드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중고거래 시세도 예전에 비해 2배 넘게 치솟았다는 게 관련 업계 설명이다.

지난해 9월만 해도 90만원 중반대였던 '엔비디아(NVIDIA)'의 그래픽카드 'RTX3080'은 이달 230만~350만원대에 거래가 형성될 정도다.

광주·전남 PC방도 가상화폐 채굴에 뛰어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손님 발길이 끊긴 점도 한몫을 했다.

광주시 북구 문흥동 한 PC방의 경우 100대의 PC중 30대를 가상화폐 채굴용으로 사용중이다. 손님이 없어 컴퓨터를 그냥 놓려니 가상 화폐라도 채굴해 부수입을 올리자는 생각에서다.

PC방 사장은 "코로나로 손님이 크게 줄어 PC 방 운영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며 "하루 종일 돌리면 이더리움(가상화폐) 0.12~0.15개 정도(현 시세로 20만~30만원 선)를 번다"고 했다.

젊은층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풍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은경제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장은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등이 투자가 아닌 중독의 개념으로 변질 되고 있다"면서 "주식중독과 가상화폐 중독으로 인한 문제점은 바로 드러나지 않고 2~3년 후 더 큰 사회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선비의 새요? 골칫덩이입니다"

주민들, 아파트 화단 등지 뜬 백로떼 울음소리·악취 하소연

"선비의 새요? 골칫덩이입니다." 광주시 서구 화동동 삼익아파트에서 만난 입주 주민들은 아파트 화단에 등지를 뜬 백로떼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입주민 A씨는 "봄에 백로가 날아들어 여름에 떠날 때까지 밤낮으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미치겠다"고 하소연했다.

아파트 입주주민들의 고통은 지난 2018년 백로들이 날아들면서 시작했다. 백로들은 봄에 알을 낳아 여름 새끼를 부화한 이후 등지를 버리고 떠나는데, 이 기간 동안 아파트 주변 나무를 번식 장소로 선택하면서다.

맘게는 40마리가 넘는 백로들이 쉴새 없이 울음소리를 내는데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소름이 돋을 지경이라는 게 입주주민들 하소연이다.

백로들이 쉴아내는 배설물이 차량을 비롯, 아파트 내 도로 곳곳에 떨어지는 점도 주민들의 골칫거리다. A씨는 "바닥에 떨어진 배설물은 여름이 되면 썩는 듯 역한 냄새로 코를 찌른다"고 말했다. 몸 길이 1m는 족히 될만한 백로가 낮게 날면 길을 지나던 주민들도 위협감을 느낄 정도라는 게 주민들 하소연이다. 이들 주민들에

겐 백로는 '선비의 상징'이 아닌, 골칫덩어리일 뿐이다.

주민들은 관할 자치구인 서구에 해결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구도 뾰족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는 입주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지난 2018년부터 백로가 등지를 뜬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백로를 이동 유도했다. 하지만 백로는 인근의 다른 나무로 이동하는 데 그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올해도 지난 1일 백로가 등지를 뜬 나무 2그루의 가지를 모두 잘라냈지만 인근 다른 나무에 다시 등지를 틀었다. 서구는 나무를 그물망으로 덮어 백로가 등지를 뜰 수 없게 하는 방법도 검토중이지만 해결될 지 미지수다.

서구 관계자는 "백로떼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광주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이 곳으로 이동하는 만큼,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광주전에 백로가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만들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불법 전매 알선 공인중개사들 벌금형... "관대한 처분" 지적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 주택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한 공인중개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일부 전매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조차 없는 중개인들을 통해 이뤄졌음에도, 알선 수수료에도 못 미치는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분이 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 인파에서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단 의지도 온도가 사뭇 다른 것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온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여·4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전매행위가 금지됐음에도, 15차례에 걸쳐 광주시 남구와 동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행위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5차례에 걸쳐 전매 제한 기간에 광

주시 남구와 동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행위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25만원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기소된 B(여·53)씨에게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전매 금지기간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300만원을 받은 C(여·48)에게는 50만원,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알선하고 100만원을 받은 D(여·65)씨에게도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알선하고 370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E씨(여·46)에게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의 선고형량은 불법 전매 행위를 알선하거나 자격 없는 알선 행위에 따라 챙긴 수수료보다 못 미친다는 점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벌금이 고작 이정도? 법을 바꿨다', '이득이 일만데, 불법 저지르라고 부추기네', '부동산(범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가네' 라는 식의 비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나란히 이전...과오 담은 안내판도 설치

전두환과 노태우 동상이 한 자리로 옮겨진다. 업적 대신 잘못된 과오를 담은 안내판도 설치된다.

6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청남대 전직 대통령 동상 자문위원회'는 청남대에 있는 전씨와 노씨의 동상을 존치키로 했다.

위원회측은 전두환 동상을 관리사무소 뒷편에

있는 노태우 동상 인근 부지로 옮겨 설치하고 군사 반란을 일으킨 내용, 계엄군을 동원해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거스르며 호헌 조치가 발표된 내용 등을 팻말에 적어넣기로 했다. 기존 대통령길 명칭 등은 추후 소위원회에서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4.7 보건의날 기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자회견

보건의료 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으로 버틴 코로나 1년! 이제는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건의 날...공공의료 강화 촉구 보건의 날을 하루 앞둔 6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청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